

믿음의 문 열고 그리스도께로

한국 교구, 일제히 '신앙의 해' 개막미사 봉헌하고 신앙쇄신 다짐



신앙의 해 개막 미사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막 50주년 기념일인 11월 바티칸 성 베드로광장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 주례로 장엄하게 거행되고 있다. [바티칸시티=CNS]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한국 각 교구는 신앙의 해(10월 11일~2013년 11월 24일)를 맞아 11일 개막미사를 봉헌하고 신앙의 해를 신앙 쇄신과 새로운 복음화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관련기사 8·9면** 바티칸도 11일(현지시각)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 주례로 신앙의 해 개막미사를 성대하게

봉헌했다.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참다운 정신을 되살릴 것을 촉구하며 "공의회를 단지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공의회와 영적 운동을 접한 의미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신앙의 해는 교황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쇄신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길 촉구하며 선포한 해다. 이에 따라 한국 주교회의와 각 교구는 신앙의 해 취지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대교구는 「신앙의 해 안내서」를 발간해 각 본당에 배포하고, 관련 내용을 누리방(faith.catholic.or.kr)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교구

장 영수정 대주교는 명동주교좌성당에서 봉헌된 개막미사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신앙의 해를 선포한 이유는 세계교회가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신앙의 해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시대 새 복음화'를 주제로 제2차 시노드를 열고 있는 대구대교구는 공의회 문헌을 공부하는 복음화학교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신앙의 해를 맞아 '새로운 복음화'에 교구 역할을 집중하기로 한 인천교구는 관련 심포지엄과 교리경시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는 계신주교좌성당에서 봉헌된 개막미사에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은 믿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새로운 확신으로 가득한 신앙교백이 절실한 때"라며 자신부터 철저히 복음화하자고 당부했다.

주교회의는 누리방(www.cbck.or.kr)에 '신앙의 해' 배너를 만들어 △신앙의 해 개요와 목적 △사도좌 관련 문서 △관련기사, 자료집 등 참고자료 △주요 교회문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도 연구소 누리방(pastor.cbck.or.kr)에 신앙의 해 게시판을 개설해 참고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임영선 기자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십시오"

교황, 전교주일 담화 발표



주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교황은 "주교는 한 교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축성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주교들의 복음선포 사명을 특별히 강조했다. 교황은 "교회의 생활방식과

사목계획, 교구 조직도 교회 존재의 근본 차원인 선교에 맞춰 끊임없이 쇄신돼야 한다"며 주교들이 쇄신을 이끌어 선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당부했다.

이어 "마음의 갈증을 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을 알려 모든 사람이 이 기쁨을 체험하게 하라는 열망이 솟아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을 지녔지만 하느님을 잊아가는 공동체에서 새로운 복음화를 촉진해 그들이 신앙의 기쁨을 되찾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앙은 나누라고 받은 선물"이라며 "복음화에 대한 관심은 교회 활동과 개인

생활의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복음 선포는 '교회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명령으로 맡겨진 임무"라며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지녔던 사도적 열정을 되살려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음 선포는 이웃을 돕는 발단이 되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의가 된다"며 세계교회 보편선교에 협력하는 교황청 전교구주교들에게 감사했다. 강성화 기자 michaela25@pbcc.co.kr

'함께 모여, 축복과 나눔'의 잔치 오클랜드교구 대성당 소수민족 연합축제



【오클랜드】 설립 50주년을 맞은 오클랜드교구청이 주관한 오클랜드교구 대성당 소수 민족 연합 축제 'Cathedral Unity Festival of Oakland Diocese'가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클랜드 다운타운에 있는 주교좌성당 'The Cathedral of Christ the Light, 2121 Harrison St., Oakland CA USA'에서 오클랜드 교구 내 각 소수민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가 있었다.



한국 공동체가 행사장인 오클랜드 주교좌 성당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대성당 안에서의 축제 의식이 있기 바로 전, 각 민족들의 시가행진이 있었으며 코리아 커뮤니티 소속 농악대가 판리와 북을 치며 선봉에 서서 시가지 퍼레이드 행진의 흥을 돋웠다. '함께 모여, 축복과 나눔'이라는 표어로 각 민족들의 성당 안으로 입장할 때는, 각 민족들이 주님께 드리는 봉헌예물을 가지고 각 민족의 전통 의상을 입고 민족춤을 추면서 입장하였고, 알렉산더 부르넷 대주교, (Archbishop, Alexander Brunett, 전 시애틀 교구 주교)와 오클랜드교구의 제2주교인 존 커밍스 전임주교(Bishop, John S. Cummins)가 임당하는 각 민족들이 봉헌하는 예물들을 받았다.

알렉산더 부르넷 주교는 "우리 교구 내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되는 상징적인 예표라고 말하면서, 현재 우리 교구가 위치한 오클랜드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태평양을 연결시켜 주고 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유럽과 극동의 아시아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오늘 의 특사에서 예제키엘서의 치유를 시키는 두 개의 강은 두 개의 신비(Sacrament)를 말하며, 성체성

사(Holy Eucharist)와 세례성사(Baptism)를 상징하며 우리를 하나로 일치시켜 기쁨과 번영의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이 두 개의 성사로 용서와 일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 안에서 서로의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언급했다.

오클랜드 주교좌 대성당(The Cathedral of Christ the Light)은 '예수님은 빛'이라는 이름과 같이, 생김새는 예수님의 왕관과 같은 모양을 한 성당이며, 벽면이 전부 유리로 지어졌고, 나무 블라인드가 열리면, 빛이 모두 통과하도록 지어졌어 종세의 어둠과 음침한 교회건물과는 다른 내부가 매우 밝고 신선한 느낌을 준다. 특히 성당내부에는 빛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투영되는 거대한 스테인드글라스가 인상적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문화는 모두 녹아서 하나로 되는 'Melting Pot'이 더 이상 아닌, 각각의 다양성 안에서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며, 또한 조화와 일치를 느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도 성당외부행사에 적극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여, 한인 커뮤니티의 홍보와 위상을 더 높여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 행사였다.

오클랜드 성당은 비교적 외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젊은 층으로 구성된 프락 회원들의 봉사 및 참여가 이 행사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였다.

성당 내 행사가 끝난 후, 각 민족 푸드부트(Ethnic food booths)와 민족춤 공연이 함께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의 오클랜드 성당 및 트라이밸리 정하상 바오로 공동체 신자 분들이 함께 참석했고 성모회, 행사부, 오클랜드 성당 농악대, 하상회, 프락회 회원들의 봉사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사진/기사제공 : 천종욱

미	뉴욕 우드사이드 성당 이전 첫 미사 및 서보호 신부 송별식	3면
리	(특별기고 시(詩)연재) 한영국의 '바람결 시 한 잎'	7면
보	(신앙의 해 시자) 신앙쇄신·성숙 도모하는 은총의 해 막을라	8, 9면
기	특집 : 일본 나가사키현 그리스도교 사적지 순례 <하>	15면

영문, 한글, 사회자의 해설까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의 차례예절.

부활의 신앙 안에
이중 언어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 줄 필수 예식서

한영 상장애식서

Catholic Funeral Rites (Korean-English)

"한인 공동체 전례"

이민 1~3세대 이상이 함께 공존하는 한인 가톨릭 가정의 언어적 문제 해소, 임종부터 운명, 연도, 고별 전야 예식, 장례미사, 하관예절, 노래연도, 우제, 차례예절, 위령 성가 등 장례예절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담은 유용함과 편리함.

문의 평화방송·평화신문 미주지사 사무국
t (718) 762.6500 / (800) 219.1137 f (718) 762.5108
info@peacetimesweekly.org